

≧ 봉료보건의법

-지난호에 이어서-

자료제공:봉료보건봉침연구회

제4장 경락과 주요혈

1. 경락이란 무엇인가

봉침시술을 하기 전에 우선 알아두어야 할 것이 경락과 경혈이다. 동양의학에 있어서 경락의 유무를 모르고 침이나 약을 논할 수 없으며 더욱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봉침에 무슨 경락이 필요하고 경혈이 필요하며 보사가 필요하냐면서 무시해 버리고 아픈 곳에만 시술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며 무지의 소치인 것이다. 특히 한국봉료보건의 연구회 회원이라면 기초적인 경락의 유주와 주요한 혈, 또는 원혈, 극혈, 락혈, 모혈, 유혈 등을 숙지하면 병이 어디에서 어떻게 전변되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치료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 경락과 경혈이 무엇이며 중요한 혈들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현대의학에서 경락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은 발달된 기계를 가지고도 아직까지 경락의 흐름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경락을 받아들일 만한 학적 구조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 없듯이 경락도 우리 인체 내에서 분명히 흐르고 있는 것이다. 경락은 가까운 앞날에 어떤 형태로든지 발견될 것이다. 그때 현대의학은 지금보다 더욱 폭넓은 구조가 될 것이다. 여하간 현실문제로서 경락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1) 경락의 작용

경락은 중초(中焦 : 위)에서 생긴 영혈(榮血)과 하초(下焦 : 소장, 대장)에서 생긴 위기(衛氣)가 통하는 관으로서 각기 담당할 장부, 조직, 기관 등에 영양,

신진대사, 생장 등 모든 생활현상을 보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락은 영위의 통로 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일들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다. 만약 그 작용이 약화되거나 혹은 이상향진되면 그 경락이 담당할 장부, 조직, 기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경락에는 그대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맥상에 나타나서 숙련된 진찰자의 손가락 끝에 모든 이상이 그대로 촉지되는 것이다.

(2) 경락의 종류

경락의 경이란 문자 그대로 직물의 종사를 말한다. 인체에서도 직물의 종사와 같이 종으로 주행하여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자에 맥자를 붙여서 경맥이라고도 한다. 경락은 12개의 주되는 경맥과 8개의 기경팔맥과 이것에서 갈라져 나온 가는 맥, 즉 손락, 혈락 등으로 분류한다.

15락은 12개의 경맥을 연락하기 위해서 12개의 경맥에서 각기 한 락씩 12락에다 비경의 대락과 임맥, 독맥에서 한 락씩, 두 락을 합쳐서 15락이라 한다. 손락이란 경이나 락에서 나온 것 보다 더 가는 맥이다. 혈락은 팽창한 혈관, 특히 팽창한 모세혈관을 의미하는 수도 있다.

특히 주요한 12개의 경맥은 각기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환(고리)로 되어 있어서 전신 어디든지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영위는 그 경맥으로 실 사이 없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하나의 환에도 각 경락은 담당구역에 따라서 성질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12개의 구획을 정하게 된 것이다. 즉 육장 육부에는 각각 한 개씩의 경맥이 소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에 소속한 것을 폐경(肺經)이라 하고 위에 소속한 것을 위경, 신(腎)에 소속한 것은 신경이



라 한다. 그리고 이 경맥들은 각기 그 장부의 작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위경은 위의 소화작용에, 폐경은 폐의 호흡작용에, 신경은 신의 작용인 생명력이나 생식작용 등에 관계를 갖고 있어서 이들의 질병에 대한 치료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3) 경맥의 명칭

각 경맥은 어느 것이나 시발점 또는 종착점이 수족 말단에 와있다. 그런 관계로 수(手), 또는 족(足)의 어느 경이라 부른다.

또한 장(臟)은 음(陰)이고 부(腑)는 양(陽)이기 때문에 음 또는 양의 천(淺), 심(深)의 정도에 따라 태양, 소양, 양명을 삼양이라 하고, 태음, 궤음, 소음은 삼음이라 하는데 경맥에도 삼음 삼양의 명칭을 붙인다.

이상과 같이 경맥은 각각 그 장부와 동성의 관계를 가지고 음과 양이 한 조로 짝지어져 있다. 예를들면 폐경(陰)과 대정경(陽)은 부부와 같이 한 조로 짜여 함께 금성이 되고 이것은 다시 오행적으로 상생, 상극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2. 기경팔맥(奇經八脈)

12경맥은 영위(榮衛)를 순환시키고 있으나 항상 순조롭다고는 할 수 없다.

만약 영기와 위기가 어떠한 원인으로서 부분적으로 지나치게 넘쳐 흐르려고 할 때 이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로서 또 다른 경맥이 있어서 이것에 의하여 그 재난으로부터 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경팔맥이다. 이 원리는 고전에서는 하천의 범람에 비유하여 제방이 붕괴되려고 할 때 별도로 흘러나갈 수 있는 물길이 필요한 것 같이 인체에도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경팔맥이라 하였다.

팔맥은 독맥(督脈), 양교맥(陽?脈), 임맥(任脈), 음교맥(陰?脈), 충맥(衝脈), 양유맥(陽維脈), 대맥(帶脈), 음유맥(陰維脈)이며 이 중에서 독맥과 임맥은 12경맥과 같이 전속의 경혈을 갖고 있는 별격의 경맥이다.

3. 경혈(經穴)이란 무엇인가

경혈은 경락을 따라 흐르고 있는 기가 출입하는 문호로서 12경맥의 기는 이 경혈이라는 문호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이다. 인체에 이상이 생겨서 어느 경락에 사기가 실하여 졌을 때는 그 경락에서 이것을 몰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호, 즉 여기에 적합한 혈을 선택하여 시술하여 이와 반대로 경락의

정기가 부족하였을 때는 이것을 보하기 위하여 정기를 끌어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문호, 즉 여기에 적합한 혈을 선택하여 시술함으로써 경락의 허실을 바로 잡아 음양을 조화시키는 구실을 하는 곳이다.

(1) 경혈의 수와 명칭

황제내경(皇帝內經) 소문(素門)에는 천(天)의 운행 365도에 맞추어 365혈로 만들었으나 14경 발휘(發揮)에는 354혈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문헌에 따라서는 동일혈을 달리 명칭을 붙인 것도 있다. 동일혈명이 두세 종으로 된 것이 많으며 최고로 미골단에 있는 장강이란 혈은 17가지의 이명이 있고, 관원혈은 26가지의 이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명을 붙인 것이므로 덮어놓고 다 버릴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서 명칭을 붙였느냐에 대해서는 그 전부는 알 수 없으나 일부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치료와 관계있는 것

유자가 붙은 혈은 치료하면 효과가 있는 곳으로 예를 들면 위유는 위병을 치료하는 혈이다. 장부, 기관명을 붙인 것은 그 병에 치효가 있는 곳으로 예를 들면 폐, 대장, 신(神, 정신, 心), 이(耳), 청(廳), 목(目), 혈(血), 근(筋), 수(水) 등의 자(字)가 붙은 것은 이러한 병들을 치료하는 혈이다.

② 부위의 상황에 따라서 붙인 것

골자가 붙은 것으로는 그 골명에 따라 곡골, 속골, 절골, 완골 등이 있고, 그 부위의 근육, 골격 등의 형태에 따라 붙인 것으로는 오목한 곳에는 곡(谷), 계(谿), 연(淵) 등이 있으며, 근(筋), 육(肉), 건(腱)에 따라 명확히 경계되어 있는 곳에는 관자가 많이 붙어 있다.

-다음호에 계속-

바로잡습니다

지난 10월호 17페이지 수입개방에 대한 양봉산업 발전 심포지움 내용중 '농업기술원 양봉과 를 '양봉연구소'로 바로잡으며' 참석인원 '4,000명, 7,000명'을 '400명, 700명'으로 각각 바로잡습니다.

또한 필리핀 양봉견학 마치고, 19페이지 밑부분 좌측 사진 설명 내용 중 '좌측 류재광을 '우측' 류재광으로 바로잡습니다.